

W_F_723

저승 갓당 돌아온 오침 어른

2019년 8월 14일, 서귀포시 대륜동(법환동) 법환경로당, 문순덕 · 김은정 조사.

허년자(여, 1944년생, 서귀포시 법환경)

- 서귀포시 서호동 출생으로 20세에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환경에서 살고 있다.

- 줄거리: 오씨 집안 어른이 죽어 장례식 전에 3일 동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살아났다.
어르신은 저승을 갔는데 문지기가 잘못 왔다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다고 한다.

[제보자] 나는 서호에서 자랐기 때문에 거기서 들은 얘긴디. 웃동네 오침이 어른이 돌아가서 죽으니까 막 옷 입히고 딱 묶어그네 이불 덮으고 헹 옛날은 죽으민 방에 3일 동안 잊어.

경허난 3일 동안 잊단에 관들에 들여놓젠 하당 보난 사람이 발이 꼬물락꼬물 락 경행 헌디. 그 사람이 살아난 전설이.

그 사람이 곤는 말이 죽어그네 저승을 강 보난 문지기가 잊었다네 이름을 딱 뺐. 누구 왔습니다 이름을 하난 잘못 들어왔네. 이름을 잘못 불러왓네. 너는 돌아가. 경행 돌아왓덴.

경허명 저승 강 온 말을 막 혁니다게. 아들이 부모가 굽은 말을,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그네 10년 더 살았 돌아갔우다.

- 핵심어: 오침(오씨 집안), 관, 저승, 문지기